Abstract geometric lines in orange and dark green, forming various shapes and patterns across the top half of the page.

제3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 결산자료집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
조직·운영위원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ÖLO)는

많은 학생들에게 언어학 올림피아드를 알리고, 언어학 올림피아드 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비공인 언어학 올림피아드입니다.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KLO)에 앞서서 언어학 올림피아드에 입문하는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제3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는 출제, 홍보, 개최 전반에서 언어학 올림피아드에 뜻을 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대회에 함께한 사람들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강래
부위원장 강한별
이상준

대회운영 김강래 (성남외국어고,
전북외고·살레시오고)

박시현 (청심국제고)

이규화 (서울과학고)

이상준 (대전과학고)

이재현 (서울국제고)

정원준 (서울국제고)

정태훈 (서울과학고)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 운영위원회

출제 김강래
이상준
박시현
정원준

응시자

강*원	강*준	고*은	고*환	구*현	권*울	권*주	권*일
김*언	김*윤	김*윤	김*은	김*재	김*빈	김*안	김*진
김*찬	김*찬	김*희	김*경	김*원	류*윤	문*온	문*울
박*민	박*영	박*현	박*수	박*윤	백*하	서*울	소*린
손*미	손*원	오*은	우*규	유*민	윤*원	이*연	이*주
이*후	이*서	이*서	이*엽	이*찬	이*후	이*원	이*인
이*서	인*현	임*호	임*성	장*윤	정*진	정*재	정*진
정*이	조*우	진*서	차*린	최*윤	최*영	최*서	최*석
최*재	한*연	한*후	황*언				(총 68명)

목차

출제자 코멘터리	3
시험 진행 및 문항 통계	6
설문조사 통계	10
참가자 순위 (일부)	11
운영위원 코멘터리	12
부록: 홍보물	14

본 면은 내용이 없습니다



출제자 코멘터리

문제 요약

제3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는 2시간 동안 8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순서에는 제한이 없었으며,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언어, 배점, 출제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베어	대서양·콩고어족	10점	정원준
#2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인도·유럽어족	10점	김강래
#3	메벤펃어	세픽어족	10점	김강래
#4	고대 그리스어	인도·유럽어족	10점	박시현
#5	아이마라어	아이마라어족	15점	이상준
#6	유룩어	알그어족	15점	정원준
#7	위이시카어	티모르·알로르·판타르어족	15점	김강래
#8	해안마린드어	아님어족	15점	김강래

문제 출제는 어족·지역 간의 균형, 언어학 분야와 개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언어학올림피아드(KLO)에 준하도록 10점 4문제, 15점 4문제의 100점 만점인 시험지로 구성하였고, 각 문제는 자기완결적이며 명시하지 않는 한 답안 이외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언어학적 사전 지식의 영향을 줄이고, 논리력과 추론 역량을 시험하기 위한 노력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출제자 본인에게서 받은 답을 모아 ‘출제자 코멘터리’로 기록하였습니다. 출제자 코멘터리는 대략의 내용과 의도를 보여줄 ‘출제 기획’과 대회를 진행하며 느낀 바로서 ‘통계를 보고서...’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1. 에베어

출제 기획

“자료에서 규칙을 찾아 문제를 푼다” 라는, 언어학 올림피아드의 핵심을 짚는 문제였습니다. 규칙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방심하기도 쉽다는 점.

통계를 보고서...

쉽게 출제한 만큼 예상대로 만점자가 많았습니다. 다들 잘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2.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출제 기획

언어가 범인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언어를 이용한 말놀이 역시 범인류적인데요, 그래서 언젠가 말놀이를 한 번 출제하고 싶었습니다.

통계를 보고서...

예상대로 많은 참가자가 정답을 제출했는데, 0점의 수가 적은 만큼이나 만점의 수도 적어 의아한 문제였습니다.

#3. 메뎀벳어

출제 기획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언어들은 모두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십진법의 사고를 조금은 벗어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통계를 보고서...

10점 문제들 중 제일 평균점수가 낮고 표준편차도 컸습니다. 십진법에 익숙한 나머지 규칙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4. 고대 그리스어

출제 기획

이 문제는 본인이 고대 그리스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는 굴절어로, 어미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전치사 등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출제 의도는 굴절어의 어미를 보고 주격(nom.), 대격(acc.), 속격(gen.), 여격(dat.), 탈격(abl.)을 구분해내어 뜻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통해 학습자들은 언어학적 지식과 분석력을 활용하여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계를 보고서...

문제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 난이도가 적절했으며, 문제의 목적에 부합한 난이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대다수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어나갔으며, 이는 문제가 출제 의도와 학습자들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학습자들의 높은 참여도와 성취감을 통해 문제의 효과적인 구성과 출제 의도의 명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 출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아이마라어

출제 기획

언어와 문자를 잇는 고리는 정서법正書法이고, 정서법을 만드는 것은 인간입니다. 언어를 보는 인간의 눈이 정서법에는 투영되어 있습니다. 아이마라어 문제의 두 정서법은 이 시선에 관한 역사적 인정투쟁의 단편입니다. 문제를 풀며 이러한 사실들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고서...

어렵지 않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평균은 예상대로 높았지만 8번 문제와 똑같이 만점자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잔실수들이 많았던 탓이라 짐작됩니다. 덕분에 최악의 출제자 표도 적잖게 쌓인 것 같습니다.

#6. 유록어

출제 기획

이 문제는 사고력에 기반한 인지적 범주의 확립을 연습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는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통계를 보고서...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0점이 꽤 많습니다. '내 것과 다른 사고 체계의 추론'이라는 풀이과정이 낯설었기 때문일까요?

#7. 위이시카어

출제 기획

단어가 지니는 세세한 의미, 단어를 만드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릅니다. 언어학 올림피아드 문제 중 제일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 어휘의미론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통계를 보고서...

짜을 찾는 문제였음에도 만점의 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대회에서 제일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8. 해안마린드어

출제 기획

여기 미지의 언어로 쓰인 문장과 그 한국어 뜻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주어 어떻게 나타낼까요? 또 목적어는요?

통계를 보고서...

어려우라고 낸 문제가 맞았으며, 그 결과 0점의 수가 제일 많은 문제이자 평균점수가 제일 낮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탓인지 최악의 출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대회 진행 및 응시 통계

개관

시험 개요

시험 시간	2시간 (또는 1시간 + 1시간*)
문항 수	8문항
개최 기간	03/10 - 03/29 (20일)

* 일부 학교는 개최 여건상 1시간 2회로 분산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한 번이라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시 처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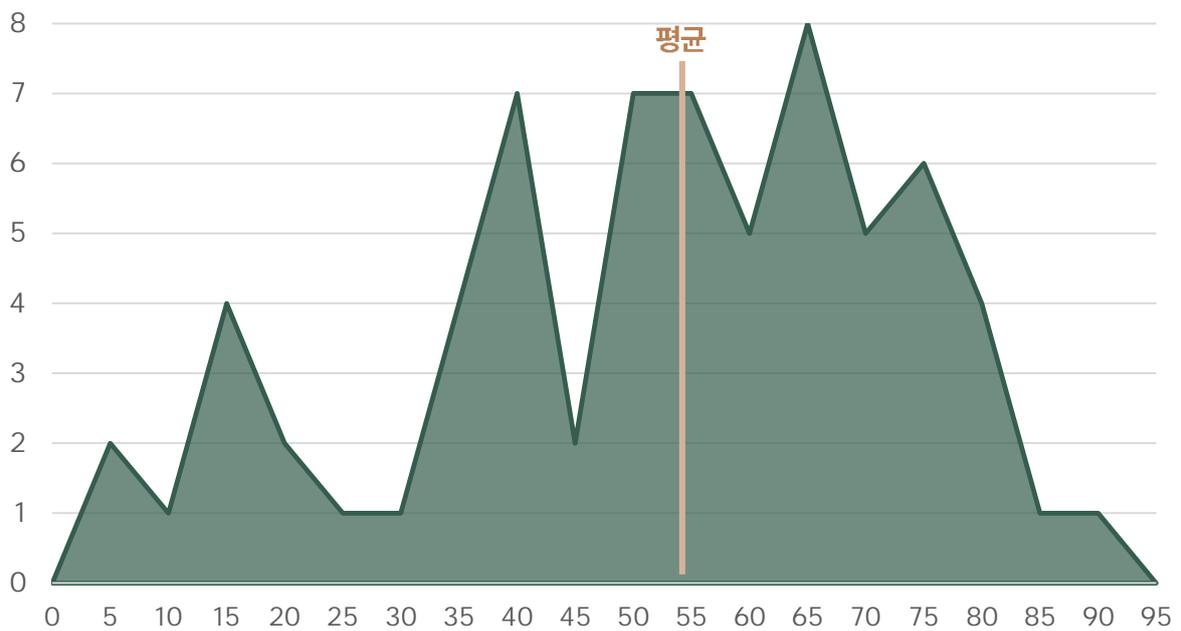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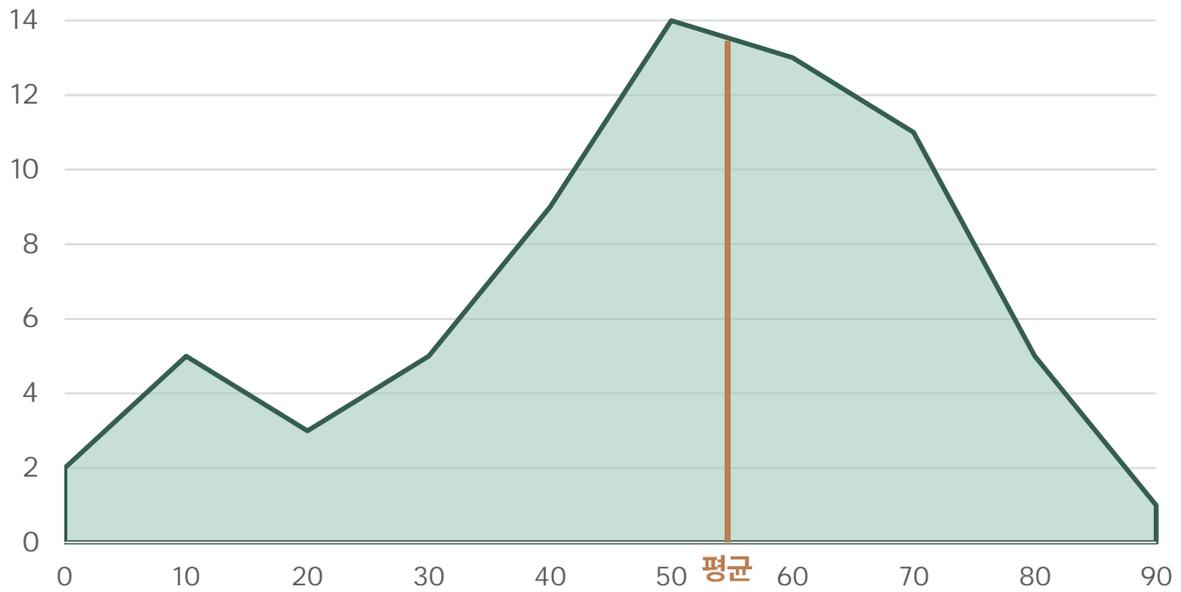
응시 통계

총 응시자 수*	68명
응시 학교	7개교 (전북외고·살레시오고·서울국제고·청심국제고·서울과고·대전과고·성남외고)
가장 많이 응시한 학교	성남외고(20명)
새로 참가한 학교	4개교 (전북외고·살레시오고·대전과고·성남외고)
응시단위**별 평균 응시자 수	11.33명

* 결시자 제외. ** 전북외고와 살레시오고는 함께 응시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산.

전체 성적

도수분포다각형¹ (10점 및 5점 간격)



이번 대회 평균은 54.94 ± 20.85 점(\pm 뒤 표준편차)이며, 중앙값은 58점입니다. 직전 대회의 33.89 ± 18.17 점 및 그 이전의 23.77 ± 14.23 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험 난도가 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¹ 기술적 한계로 계급은 계급구간 가운데 최솟값으로 표시하며, 마지막 계급은 만점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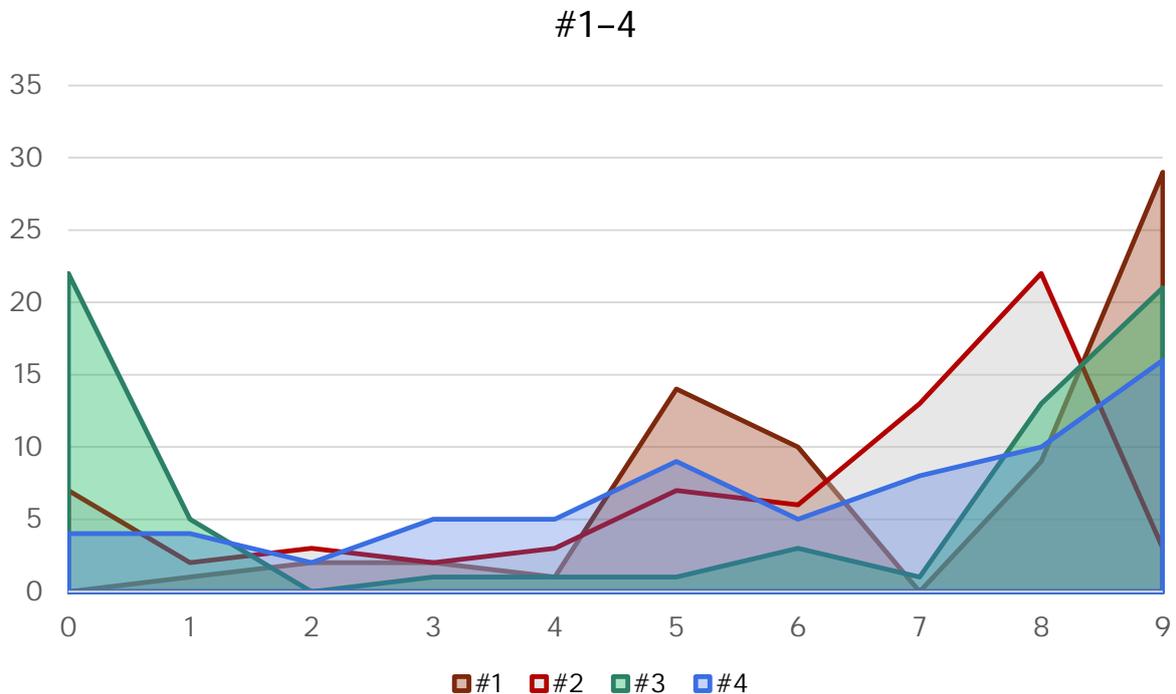
문항별 결과

항목	#1	#2	#3	#4	#5	#6	#7	#8	총점
출제자	정원준	김강래	김강래	박시현	이상준	정원준	김강래	김강래	
만점	10	10	10	10	15	15	15	15	100
평균	7.83	6.53	5.49	6.69	8.96	8.11	9.43	1.90	54.94
표준편차	2.30	2.87	4.35	2.96	4.55	4.34	6.00	2.83	20.85
최고점	10	10	10	10	14.5	15	15	13	93.5
최저점	1.5	0	0	0	0	0	0	0	9.5
제출자 평균	7.83	7.05	8.11	7.11	10.51	9.68	10.87	3.69	0
최저유효점수*	1.5	1	2	2	2.5	1.5	0.5	1	
0점의 수	0	5	22	4	10	11	9	33	
만점의 수	29	3	21	16	0	1	27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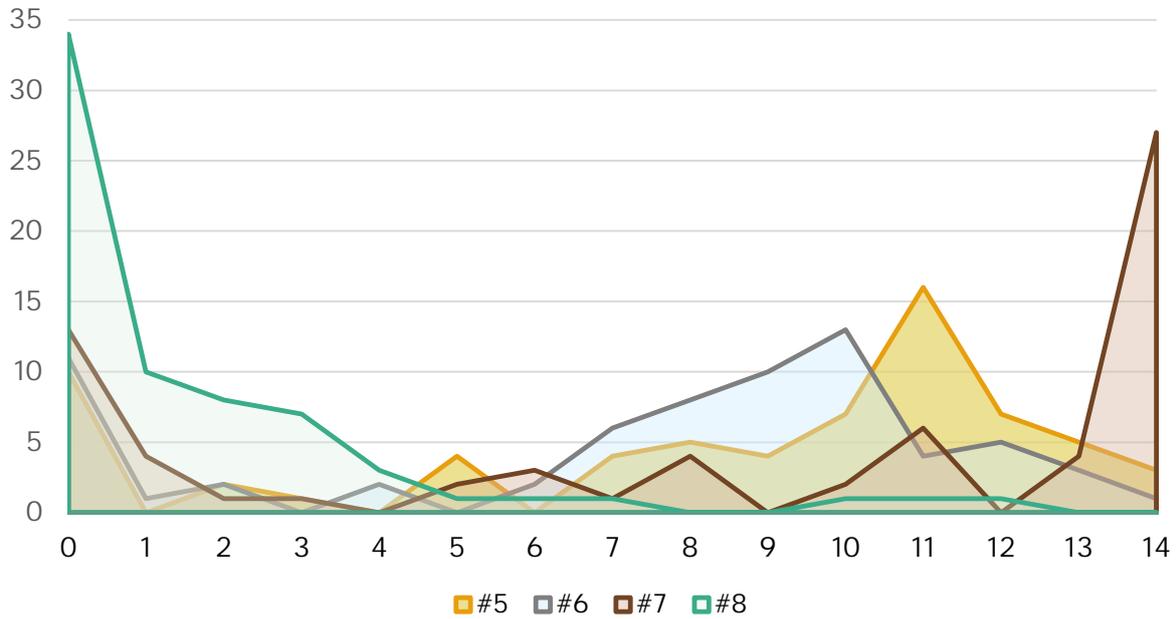
평균과 표준편차는 모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최저유효점수 = 0점이 아닌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

문항별 점수 분포



#5-8



3번과 8번을 제외한 문제들은 응시자들이 일정 이상 풀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10점 문제 중에서는 3번 메뱌벳어, 15점 문제 중에서는 8번 해안마린드어가 가장 높은 난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난도와 배점에 맞게 고른 분포가 형성되었습니다. 응시 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체감 난도와 문제에 대한 선호도는 이어서 나오는 설문조사 통계를 통해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통계

설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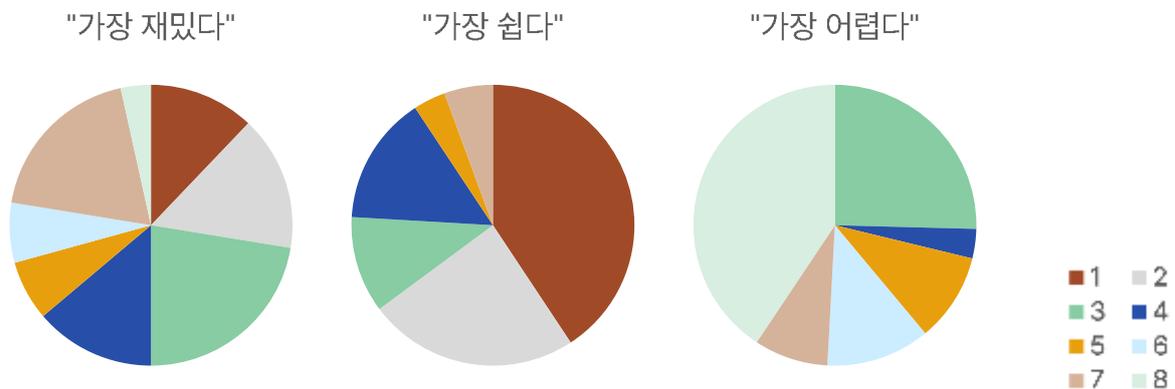
언어학 올림피아드에서는 관례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문항 피드백과 ‘최고의 문제’ 시상에 반영합니다.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에서도 이를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2차례의 대회에서는 “어느 문제가 제일 쉬웠습니까?”, “어느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어느 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출제자와 참가자 모두가 즐길 만한 요소를 추가하고자, “어느 출제자가 제일 싫었습니까?”라는 문항을 더했습니다.

설문 통계

문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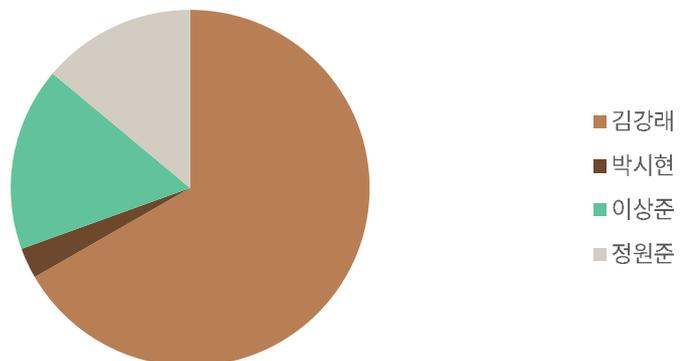
항목	#1	#2	#3	#4	#5	#6	#7	#8	무응답
출제자	정원준	김강래	김강래	박시현	이상준	정원준	김강래	김강래	
“가장 재밌다”	7	9	13	8	4	4	11	2	14
“가장 쉽다”	22	13	6	8	2	0	3	0	14
“가장 어렵다”	0	0	15	2	6	7	5	24	14

* 이하에서 모든 중복 투표는 각각의 항목에 한 표씩 던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출제자”

출제자	응답
김강래	24
박시현	1
이상준	6
정원준	5
무응답	33



수상자 발표

다음은 제3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 결과입니다. 1위부터 31위까지는 이름과 학교, 학년, 순위, 점수가 공개되며 그 이하로 일정 순위까지 점수를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의 둘째 자는 복자 처리하였습니다.

1위	김*찬	서울국제고	3	93.5	23위	김*윤	대전과학고	1	68
2위	고*환	서울과학고	3	89.5	24위	정*진	성남외고	1	67.5
3위	한*후	대전과학고	2	84.5	25위	김*언	대전과학고	2	65.5
4위	이*후	대전과학고	2	84	26위	문*온	서울국제고	2	64.75
5위	임*호	대전과학고	2	82.25	27위	유*민	서울국제고	1	64.5
6위	구*현	서울과학고	3	81.5	27위	장*윤	서울국제고	2	64.5
7위	강*준	서울과학고	2	80	29위	인*현	대전과학고	2	60.75
8위	임*성	서울국제고	2	78.75	30위	황*언	서울과학고	1	60.5
9위	강*원	대전과학고	1	77	31위	이*서	서울국제고	2	60
9위	이*서	성남외고	2	77	31위	박*윤	대전과학고	1	60
11위	이*엽	서울과학고	3	76.5	33위	김*재	서울과학고	2	-
12위	차*린	서울국제고	1	75.25	33위	최*석	대전과학고	2	-
13위	김*진	성남외고	2	75	35위	이*후	성남외고	1	-
14위	박*현	대전과학고	1	73.75	36위	이*찬	대전과학고	1	-
14위	최*윤	성남외고	1	73.75	37위	박*영	전북외고	3	-
16위	고*은	서울국제고	2	73	38위	권*일	성남외고	1	-
17위	김*희	성남외고	2	70.25	39위	박*수	전북외고	3	-
18위	윤*원	서울국제고	1	69.75	40위	최*서	살레시오고	3	-
18위	소*린	청심국제고	2	69.75	41위	김*윤	서울과학고	1	-
20위	우*규	서울과학고	2	68.75	42위	김*원	서울국제고	3	-
21위	오*은	성남외고	1	68.5	43위	이*서	서울국제고	1	-
22위	권*주	청심국제고	2	68.25	44위	정*이	성남외고	2	-

다시 한번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운영위원 코멘터리

김강래 위원장 | 성남외국어고

이전 두 번의 외솔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제한된 두세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으며, 문제의 난이도 역시 초심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회 외솔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이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한 회차입니다. 개최 학교를 일곱 곳으로 늘리고, 참여 인원 역시 예년에 비해 세 배나 늘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난이도 역시 출제자들의 지속적인 수정으로 조절되어 보다 초심자 친화적인 문제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 외고에서 작년에 개최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가장 많은 참가자를 배출한 학교가 되어 기쁩니다.

이상준 부위원장 | 대전과학고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하고 출제하던 때가 재작년이었는데, 세 번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 두 차례에 들었던 아쉬움을 떨칠 수 있을 듯 합니다. 시험 참가 인원도, 개최 규모도 모두 전례가 없던 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부족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언어학 올림피아드를 더 널리 알리려고 분투했던 조직위원과 운영위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두 차례에 대전과학고는 참여하지 못했고, 이제서야 대회 개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냉대나 때로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일까지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처음 개최한 학교에서 이리 고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놀랍고 또 자랑스롭습니다.

박시현 청심국제고

우선 제3회 외솔 올림피아드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작년과 달리 출제위원으로 일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기용해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주신 조직위원회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들도 모두 이번 3회 잇올을 통해 각자 특기할 만한 결실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저는 4회 잇올 전까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서울과학고

작년 2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서울과학고등학교 개최를 담당한 이규화라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참가자는 적었지만 지난 대회와 비교하여 수가 늘어났고, 그 학생들 중 여럿이 생소했을 포맷의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참가 학생들이 언어학의 매력을 발견했길 기원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출제위원으로서, 또 더 이상 언올 참가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될 차기 대회는 올해 2학기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4회 잇올에도, 또 이후 개최될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서울국제고

작년에 처음으로 언올이란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느새 운영위원이 되어있어서 뿌듯함에 긴장이 많이 섞였던 것 같습니다. 외솔 응시 할 때보다 감독하는 게 더 떨렸던 것 같네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언어학을 이제 서야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 학교에서 홍보가 성공적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회 때는 문제출제도 해보면서 운영위원으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원준 서울국제고

제3회 잇올이 3월 28일을 기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은 제 2회 잇올에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본 만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는데, 운영위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번 대회는 멋지게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먼저 로드맵이 만들어졌고, 곧이어 멋진 포스터와 문제지, 홍보 전략이 속속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회 종료에 이른 지금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언어학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다만 출제/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닌 만큼 제4회 잇올에서는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서울과학고

언올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유형의 시험인데 생각보다 다들 잘 풀어주셔서 놀라웠습니다. 또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것 같아 좋네요.

이상으로 제3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제4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 조직·운영위원 일동

부록: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 홍보물

언어학 올림피아드를 홍보하는 방식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다른 과학 올림피아드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못하고, 언어학이라는 학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의 의의 자체가 각 학교공간 안에서 언어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접하고 해결하는 경험의 축적이기에, 운영위원들은 포스터를 게시하며 도전문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다른 기출문제(바스크어 수사 문제 등)를 붙이며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3회 외솔언어학올림피아드의 포스터와 도전문제를 중심으로 홍보에 쓰인 자료들을 수록합니다.

도전문제

포스터와 같이 제시된 <도전문제>는 KLO 포스터에서 먼저 시도한 참여형 활동입니다. 도전문제는 간단한 형태의 이벤트용 문제로서, 언어학 올림피아드의 퍼즐성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도전문제의 응답은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구글 설문으로 수합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학교로부터 60여 건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도전문제는 정원준 위원이 출제하였으며, 소재는 중세 룬 문자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4R *Thor*

ㄴ4ㄱ1 *Loki*

ㄲR1ㄲ *Frig*

ㄴ1R *Ulr*

1ㄹㄴ1 *Idhun*

ㄱ44 ??

1) 다음은 중세 룬 문자로 쓴 북유럽 신화 속 신들의 이름입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중세 룬 문자의 다른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기면 무엇일까요?

ㄲ1ㄹ4ㄲ1

포스터

포스터는 티저 포스터 한 종류와 본 행사용 포스터 두 종류로, 총 3종류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포스터들을 실어놓으며 결산자료집을 마칩니다. 순서는 티저(정원준), 도안1(이상준), 도안2(정원준) 순입니다.



언어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지적 유희를 즐기는 **당신**을 위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당신**을 위한!

제3회

외솔 언어학 올림피아드

2024.3 7개교 동시 개최 예정



도전문제
답안 제출



- 오른쪽은 중세 룬 문자로 쓴 북유럽 신화 속 신들의 이름입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이름은 무엇일까요?
- 중세 룬 문자의 다른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기면 무엇일까요?

ÞǫR	<i>thor</i>
ǫki	<i>loki</i>
ƿRIF	<i>frig</i>
ulr	<i>ulr</i>
idhun	<i>idhun</i>
_____	<i>??</i>

ƿulr

제3회 외솔 언어학 올림피아드

신청 별도 공지 참조

언어의 규칙으로부터
여덟 개의 퍼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4. 03. 22. (금)
14:00 - 16:00 [예정]
탐의관 4층 도쿄실

1~5위 고득점자 상품 증정

